

몸이 다시 사는 것

The Resurrection of the Body

고린도전서 15:42-52

그리니치 한인교회

2012년 4월 8일 부활주일 설교

⁴²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⁴³육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⁴⁴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는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⁴⁵기록된바 첫 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 주는 영이 되었나니 ⁴⁶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⁴⁷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⁴⁸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⁴⁹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⁵⁰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⁵¹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⁵²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최후의 심판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셔서 온 우주의 주권자가 되신 날이고, 또 주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도 그렇게 부활하여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을 보여 주신 날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믿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예수께서 내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구원의 첫째 조건입니다 (롬 10:9-10).

오늘은 그림 이야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주보에도 일부 실었습니다만 그 이름도 유명한 <최후의 심판>입니다. 누가 그렸는지는 잘 아시지요? 예, 미켈란젤로가 그렸습니다. 르네상스 전성기의 대표적인 조각가요 건축가요 화가입니다. 제목은 최후의 심판이지만 심판 못지않게 강조하고 있는 하나가 또 부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심판을 하러 오시는 그 날은 우리가 다 부활하는 날이기도 하거든요. 미켈란젤로는 이 그림을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시스티나 경당 정면 벽에다 그렸습니다.

경당은 미사를 드리는 건물입니다. 우리 식으로 하면 예배를 드리는 곳이지요. 그런데 경당 정면에 사람을 사백 명 정도 그렸는데 거기가 벌거벗고 있습니다. 지금은 옷 같은 걸 걸치고 있는 인물이 많습디만 미켈란젤로가 처음 그렸을 때는 몇 사람 빼고는 완전히 벌거벗은 상태로, 성기까지 그대로 드러나게 그렸습니다. 그래서 그림이 완성되기 전부터 신성한 예배당을 술집으로 만들었다고 비난을 많이 받았습디다. 특히 교황청 예배 담당자가 비난을 많이 했는데 하도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니까 미켈란젤로가 화가 나서 지옥 한가운데 있는 지옥사자 얼굴을 그 사람 얼굴로 그리고 귀도 당나귀기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사람이 교황한테 가서 자기를 지옥에 처넣었다면서 조치를 좀 취해 달라 했더니 교황이 지옥에 간 사람은 자기도 어떻게 할 수 없다 했습니다. 천주교는 교황이 천국 열쇠를 갖고 있다 하지 않습니까? 연옥에 갔다면 어떻게 해 보겠는데 지옥이라면 곤란하다 했다 하니 참 재치가 있지요. 미켈란젤로를 그만큼 신뢰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보기가 민망했던지 미켈란젤로가 죽은 다음 해 결국 그림에 덧칠을 했습니다. 새 교황이 미켈란젤로의 제자 하나를 시켜 은밀한 부분을 가리게 했는데 이 사람이 스승님 작품이라 제대로 못 가렸는지 그 뒤로도 덧칠을 몇 십년 간격으로 세 번이나 더 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들어 그림에 낀 먼지나 때를 지우면서 덧칠도 지웠는데 처음 미켈란젤로의 제자가 한 덧칠은 그냥 남겨두었습니다. 그것도 역사다 하는 핑계였지만 아무래도 성기 노출은 좀 심하다 싶어 그런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몸의 부활을 믿음

그나저나 왜 그렇게 모두 벌거벗겼을까요? 미켈란젤로가 본디 나체를 좋아하긴 합니다. 경당 천장 그림도 미켈란젤로가 그렸는데 거기도 거의 벗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삼십대에 그린 겁니다. 최후의 심판은 환갑이 넘어 그렸는데 그 나이에 도, 그렇게 반대를 하는데도, 여전히 나체를 그렸습니다. 나체가 그렇게 그리고 싶으면 다른 데다 그리지 하필 경당 정면

에다, 사람들이 예배하는 동안 안 보려야 안 볼 수 없는 거기다가, 그렇게 많이, 어떤 인물은 실제 사람보다 더 크게, 그려 놓았을까요? 그림에 답이 다 있습니다.

그림에 보면 순교자가 여럿 등장합니다. 실제로 순교를 했는지 아니면 그냥 전설인지 그건 모르지만 예수님 제자 바돌로매는 산 채로 살가죽을 벗겨 죽이는 사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림에 보면 예수님 왼발 바로 아래 바돌로매가 구름에 앉아 벗겨진 제 살가죽을 들고 있습니다. 살가죽이 벗겨졌으면 뼈가 그걸 들고 있어야 맞겠지요? 그런데 바돌로매를 보면 살가죽이 있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앉아 있는데 꼭 옷을 벗어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오른발 아래는 삼 세기의 순교자 라우렌시오가 있습니다. 뜨거운 석쇠 위에 묶여 바비큐가 되는 고문을 받으면서 “한 쪽은 다 익었으니 이제 뒤집어 다오” 그랬다는 분입니다. 그림에 보면 이 분이 석쇠를 어깨에 메고 구름에 앉아 있는데 피부가 아주 깨끗한 게 불에 탄 흔적조차 없습니다.

화살을 수도 없이 맞아 고슴도치처럼 되어 순교했다는 세바스티아누스도 피부에 흠 하나 보이지 않습니다. 톱으로 잘려 순교했다는 예수님의 제자 시몬도 몸이 멀쩡하고 헤롯을 비판했다가 목이 잘려 죽은 세례요한도 목에 힘줄만 셋지 칼자국 같은 건 안 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몸이 다시 살았는데 죽을 때의 몸, 그러니까 무덤에 묻었던 그 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묻었던 그 몸이 그대로 살아나는 게 아니고, 다치기 전의 몸으로 되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미켈란젤로의 이 그림은 정말 대작입니다. 크기가 크니 못 그려도 대작이었겠지만 미켈란젤로의 신앙과 성경의 진리가 아주 깊이 담겼습니다. 등장인물을 모두 나체로 만든 건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 믿음을 나타낸 건데 엄청난 대작의 지극히 일부일 뿐입니다.

심는 것 사는 것

시신을 매장하는 건 씨를 심는 것과 같다 했습니다. 그런데 심는 것과 거두는 것이 다릅니다. 한 알의 밀이 풍성한 곡식이 됩니다. 양의 차이가 아니라 질의 차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심는다는 말과 산다는 말이 거듭 나옵니다. 심는 건 몸을 땅에 누이는 것이고 사는 건 몸이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몸의 부활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 우리가 다 그렇게 일어날 것입니다.

심는 것과 사는 것이 어떻게 다를까? 썩는 걸 심는데 썩지 않는 게 삽니다. 한 알의 밀이 죽어야 된다 했습니다. 썩는 거지요. 땅에 묻는 몸은 썩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흔적조차 찾을 수 없습니다. 부활은 흠어졌던 세포가 다시 모이는 게 아닙니다. 지금 몸은 다 썩어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시신을 화장해도 괜찮습니다. 재를 공중에 날려도 되고 바다에 뿌려도 됩니다. 부활할 때는 하나님이 새 몸을 주십니다.

욕된 걸 심는데 영광스러운 게 살아납니다. 욕된 건 더럽고 못생겨 부끄러운 겁니다. 눈이 찌그러지고 코가 비뚤어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기 좋아하고 또 탐욕에 물들어 온갖 죄를 짓는 그게 욕된 몸입니다. 그건 땅에 묻어버립니다. 그러면 마지막 날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아납니다.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뜻에 꼭 맞는, 그런 몸입니다. 지금 몸은 참 무기력합니다. 늙어야 되고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받게 될 몸은 강합니다. 강한 게 뭘니까? 건전지 광고 보셨지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영원히 있게 될 몸이니 강합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는 혼과 영의 차이입니다. 44절입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을 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본문에 “육의 몸”이라 했는데 말이 좀 이상하지요? 몸이 한자로 육입니다. 육의 몸이면 몸의 몸입니까? 원문은 “혼적인 몸”입니다. 신령한 몸 곧 “영적인 몸”과 대조되는 몸이지요. 혼과 영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예리하다 할 때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쪼갬다” 하지요 (히 4:12). 어느 것이 혼이고 어느 것이 영인지 하나님 말씀으로 구분하는데 쉽게 말해 사람이면 다 가진 것, 그러니까 부모한테 물려받는 그게 혼이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주시는 것이 영입니다. 땅에 묻는 건 혼의 몸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다시 살 때는 영의 몸으로 살아납니다.

아담과 그리스도

이 둘이 어떻게 다른지 본문이 설명합니다. 혼의 몸은 아담에게서 오고 영의 몸은 그리스도에게서 옵니다. “기록된바 첫 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번역이 정확하지 않아 이 구절이 뜻이 잘 안 통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 넣으셨더니 사람이 “생령”이 되었다 했는데 생령의 원문은 그냥 “살아 움직이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영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산 영이 아니라 산 혼입

니다. 한자로 하면 생물이 되는데 사람뿐 아니라 동물도 산 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동물적인 목숨, 자연에 속한 목숨이 혼입니다. 오늘 본문도 “아담이 산 혼이 된 반면 마지막 아담은 살게 하는 영이 되셨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혼이 먼저 있고 영이 다음에 온 거지요.

아담은 혼입니다. 땅에서 온 흙입니다. 자연에 속했습니다. 우리가 다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 혼이니 우리도 살았습니다. 숨 쉬고, 움직이고, 먹습니다. 그런데 이 몸은 흙에서 왔고 흙에 속했습니다. 흙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신 말씀이 생각나지요. 죄를 지은 인간, 그래서 죽어야 하는 인간입니다. 자연의 몸은 오래 못 삽니다. 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뒤집는 게 이해가 잘 됩니다. “흙에 속한 이들은 흙에 속한 그 사람과 같고.” 흙에 속한 사람들은 흙에 속한 아담과 같다는 말입니다. 살았지만 결국 죽는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셨는데 마지막 아담입니다. 아담이 저지른 잘못을 끝내시고 죄로 죽은 수많은 아담을 살려주실 마지막 아담입니다. 그리스도는 땅에서 오시지 않고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오셔서 혼에 속한 사람들, 그 가운데 당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영을 주십니다. 새 생명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처럼 우리 속에도 성령께서 새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하늘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혼의 몸을 벗어난 건 아닙니다. 혼의 몸 속에 새 영, 새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싸움이 벌어집니다. 성령으로 살면 이 싸움에서 이깁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혼에게 집니다. 죄에 빠집니다.

우리가 죽어 땅에 묻힐 때 우리 혼의 몸은 없어집니다. 씨가 되어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시는 날 영의 몸으로 다시 살 것입니다. 혼의 몸을 씨처럼 심어 영의 몸이라는 풍성한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 그림에 담긴 사백 명 가운데 지옥에 떨어지는 몇 십 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그렇게 영의 몸을 갖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겉모습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하늘로 올라가고 하나는 저 아래로 곤두박질칩니다. 뭘 심었느냐에 따라 거두는 것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비밀

그냥 처음 가졌던 몸을 그대로 다시 주셔도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새 몸을 주시는 걸까요? 5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라.”

혈과 육은 혼에 속한 몸을 가리킵니다. 부모한테서 받은 몸이요 썩을 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한 번 주시면 영원히 빼앗기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위해 새 몸, 곧 영의 몸이 필요합니다. 썩을 몸으로 안 썩을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태어날 때 흙에 속한 아담의 형상을 입었습니다. 거듭났는데, 다시 태어났는데, 아직 하늘에 속한 그분의 형상은 못 입었습니다. 그걸 마지막 날 부활 때 입을 것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하리니.” 비밀입니다. 비밀이 뭘니까? 모르는 게 비밀이지요. 한 번 죽으면 끝이라는 건 누구나 아니까 비밀이 아닙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이 마지막 날 그리스도께서 나팔 소리 가운데 재림하실 때 다시 살아난다는 건 아무도 모르니 비밀입니다. 우리도 말은 들었지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들은 다음에도 비밀입니다.

“순식간에, 홀연히” 아주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다는 말을 두 번 거꾸 했는데 원문은 순서가 “홀연히, 순식간에”입니다. “홀연히”는 원문이 아토모스입니다. 자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말에서 나온 과학용어가 있지요? 아토, 원자입니다. 이거 상범 집사님 전공인데 더 이상 자를 수 없는 단위라는 뜻입니다. 시간을 자르고 잘라 더 이상 자를 수 없을 정도로 짧은 시간이겠지요. 순식간은 눈 한 번 깜짝이고 숨 한 번 실 동안인데 서양 사람도 숨은 천천히 쉬어도 눈은 빨리 깜짝 거렸는지 원문도 눈 깜짝할 사이라는 말입니다. 나팔이 울리면 그 순간 변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변합니까? 죽은 자들, 그러니까 썩을 몸이 땅에 묻혀 이미 사라지고 없는 그런 자들이 썩지 않게 다시 삽니다.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변하겠지요.

부활절의 뜻

오늘 부활절은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날입니다. 주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 구원을 완성하시고 또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구원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려주신 날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첫 열매, 그러니까 한 알의 씨를 심어 풍성하게 거두는 첫 수확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주신 새 생명 가운데 우리 썩을 몸을 잘 심으면 주님처럼 영광스럽게 다시 살아날 것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절은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날일 뿐 아니라 주님

의 재림을 바라보는 소망의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날을 바라볼 수 있는 이유가 뭐니까?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이지요? 똑같이 썩을 몸이지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절로 이미 암송했지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롬 8:11).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실 때 마지막 날 영광의 부활을 맞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믿는 그 믿음이 없이는 영광의 부활도 바라볼 수 없고 그런 사람들은 오늘도 그저 공휴일이나까 등산을 가든지 골프나 쳐야지 우리처럼 이렇게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어야 마지막 날 생명의 부활을 할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는 “살게 하시는 영”입니다.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이면서 둘째 사람이십니다. 아담이 사람이라는 말인데 마지막 아담은 뭐고 둘째 사람은 또 뭐니까? 마지막 아담은 첫 사람 아담이 망쳐 놓은 것을 바로잡아 아담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 마무리지요? - 둘째 사람은 우리 인류가 다 첫 사람 아담의 후손인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믿는 새 인류가 생길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그 새 인류의 머리가 되실 것이기 때문에, 둘째 사람이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상처

다시 미켈란젤로 그림으로 돌아가 봅시다. 사백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몸에 상처 하나 없이 말끔한데 그 가운데는 꼭 한 사람 몸에 상처를 가진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바로 그림 한 가운데 계셔서 그 모든 사람을 심판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엉거주춤 서서 양 팔을 휘두르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잘 보면 양 손과 양 발에 못 자국이 있고 옆구리에는 창으로 찔린 흔적까지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다음에도 십자가에서 얻으신 상처를 그대로 갖고 계셨습니다. 다른 사람은 죽기 전에 생긴 상처가 다 없어졌는데 우리 주님 몸에서는 상처가 왜 안 없어졌습니까? 거꾸로 물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몸에 상처가 그대로 다 있는데 다른 사람 상처는 왜 다 없어졌습니까? 이사야가 오래 전에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사 53:5). 주님 몸에 그제 남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는 다,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오늘 영광의 부활이 있게 된 것은 그저께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면서 영광의 부활을 바라볼 수 있는 것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채찍에 맞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고통을 오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도 그림 가장 높은 곳에 우리 주님의 수난을 상징하는 두 개, 십자가하고 기둥을 그려 놓았습니다. 왼쪽에는 우리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천사들이 들고 있고 오른쪽에는 추축이긴 하지만 주님이 채찍에 맞으실 때 묶이셨다 하는 기둥을 역시 천사들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처는 다 죄가 가져다준 것이기에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 상처 때문에 우리 몸이 욱된 몸이 되었고 또 욱된 몸이기에 상처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상처는 우리 주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 몸에서는 그런 상처가 다 없어지게 하시려고, 우리 몸과 마음에 있는 모든 아픔, 모든 서러움, 모든 고통, 모든 답답한 것들을 다 없애시기 위해 우리 주님은 부활 후에도 그 영광의 상처를 그대로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

우리는 오늘도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썩을 몸 안 죽게 하려고, 건강하게 해 보려고, 부지런히 먹어야 되고 그러자니 일도 해야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니 서로 더 잘 먹으려고, 그래서 서로 더 살아 보려고, 싸우고 죽이고 난리입니다. 죄가 가져온 탐욕 때문에 끔찍한 일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꼭 총에 안 맞아도 몸은 병들고 다치고 마음도 사람 때문에 일 때문에 돈 때문에 상처를 입습니다.

최후의 심판을 그릴 때 미켈란젤로도 그랬습니다. 그 때 쓴 시가 있습니다. “주님, 죽은 사람들이 부럽습니다. 주님 때문이겠지요. 두렵고 혼란스럽습니다. 제 영혼이 발작하듯 두려움에 떨니다. 주님, 마지막 때가 되거든 아버지의 팔을 제게 내밀어 저를 취하시고 저를 고쳐 주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부활의 날 우리는 천국을 다시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을 설레는 가슴으로 기대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마도 우리가 다 이 썩을 목숨을 끝내고 땅에 누워 그 날을 기다리게 될 가능성이 많지요. 우리 몸은 아마도 상처로 가득할 것입니다. 몸의 상처 마음의 상처, 몇 가지는 죽기 전

에 풀 수도 있겠지만 우리 삶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니 아마도 대부분은 무덤까지 가지고 갈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무덤도 사실은 다 그런 아픔을 모아 놓은 곳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다 일어날 것입니다. 새 몸을 입을 것인데 영광스러운 몸, 우리 주님과 같은 몸으로 살아날 것입니다. 그 몸이 어떻게 영광스러울 건지, 몸에서 빛이 날 건지 아니면 최고급 신소재로 만든 몸일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어쩌면 겉으로 보기에 미켈란젤로 그림처럼 지금 몸하고 별로 다르지 않을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주실 그 몸에는 더 이상 아픔은 없을 것입니다. 상처도 없을 것이요 눈물도 흘리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고백할 때 우리는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지금 욕된 몸을 갖고 있어 사는 게 고단하지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에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 주님과 같이 거룩하고 복된 몸으로 변화될 것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니 지금 삶이 좀 힘들어도, 그 날을 바라보면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에 대해 길게 쓴 사도 바울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열심히 살자는 겁니다. 우리 같이 힘차게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앎이니라” (고전 15:58). (권수경 목사)